



대안가정

통권10호 (2005년 여름/계간) [http : www.daeanhome.org](http://www.daeanhome.org)

- 2. 특집 / 또하나의 대안가정, 아동그룹홈
- 4. 대안가정 일기(11가정 발췌)
- 9. 예빈이 귀가
- 10. 집중조명 / 실종아동과 허위출생신고,
그리고 이상한 입양제도
- 12. 스케치 / 쌍둥이가 된 아이들
- 13. 해피빈 / 행복의 콩깍지에 씌여보아요
- 14. 상담현황 및 소식
- 15. 회비(후원) 내역 및 재정
- 16. 당신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 후원안내



한/가/정/에/서/한/아/이/를/보/살/핀/다/면...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05. 8. 15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2층) / 전화 (053)628-2592 / 전송 (053)628-2594

또 하나의 대안가정, 아동그룹홈

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잠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대안가정에서 보살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대리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을 맞아줄 대안가정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동이 대안가정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영구적인 대리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아동그룹홈이 준비되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 대안가정운동본부의 시발점이 된 아동그룹홈

대안가정운동본부는 「해뜨는집」이라는 소규모 그룹홈에서 출발했습니다.

보통의 가정을 모델로 만들어진 「해뜨는집」은 동시에 양육하는 아동이 최고 3명까지였으며, 지난 10년간 10명의 아동을 돌보아 왔습니다. 「해뜨는집」에 위탁을 의뢰하는 상담이 많았으나 시설이 아닌 보통의 가정을 지향하는 「해뜨는집」으로서는 의뢰되는 아동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는 대안가정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아이를 보살핀다면...”이라는 슬로건은 바로 대안가정운동본부의 주요 명제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27명의 아동에게 대안가정을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해뜨는집」은 2명의 입양자녀와 1명의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평범한 하나의 대안가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시 「해뜨는집」과 같은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주거공간이 마련되어야 하고, 아이들을 보살필 선생님도 확보되어야 하며,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늘 그렇듯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함으로써 동참하는 분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주시고, 마음이 향하는만큼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보금자리의 이름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그룹홈이 왜 필요한가?

사실, 장기위탁아동과 대안가정을 찾기 어려운 아동을 위한 아동그룹홈 운영은 대안가정운동본부 설립시부터 주요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설립 당시 대구시에서 미신고시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아 관련조항이 정관에서 삭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가정운동본부를 통해 위탁된 아동들 중에 친가정 복귀가 불투명한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고, 상담사례 중에도 장기보호를 요하는 아동과 가정위탁이 어려운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보호 아동, 장애아동, 취학 후 연장아와 같이 현실적으로 가정위탁이 어려운 아동들은 위탁의뢰 되었다가 대안가정을 찾지 못해 시설보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당장 하루가 급한 긴급보호 아동들 중에도 대안가정을 찾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시설로 입소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대안가정운동본부는 2005년 정기총회에서 아동그룹홈 운영을 공식적으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이사회를 시발점으로, 아동그룹홈 설치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와 임원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재정마련과 인력확보였습니다.

◆ 아동그룹홈을 설치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

우선 재정부분에서는 주택마련 등 초기설치비, 인건비, 생활비 등 초기비용으로 최소 6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모 및 조건	예 산
시설비	전용면적 60제곱미터(18평)	50,000,000원
물품비	가재도구, 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 물품	5,000,000원
인건비	보육사 1인	1,200,000원/월
생활비	식비, 교육비, 시설유지관리비, 일상생활비용 등	1,500,000원/월
합 계	60,000,000원 ~ 80,000,000원 (초기비용)	

다음으로 보육사로 근무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24시간 근무와 넉넉하지 못한 급여라는 조건 때문에 선뜻 나서는 이가 없으리라는 걱정도 있지만, 그보다는 보육사로서의 자질과 의지를 갖고 '대안가정 엄마' 역할을 즐겁게 감당할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는 함께 공유하는 추억이 있고, 세월을 함께하며 만들어가는 가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는 친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대안가정, 아동그룹홈을 향한 대안가정운동본부의 건강한 발걸음에 당신이 동행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아동그룹홈 기금 후원 안내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 : 대구은행 140-10-000273 (예금주 : 대안가정운동본부)

해피빈(<http://happylog.naver.com/foster.do>) 아동그룹홈 기금 기부 - p13 참조

전화 : 053-628-2592

궁금하시죠??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아동그룹홈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통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법률상 명칭은 '공동생활가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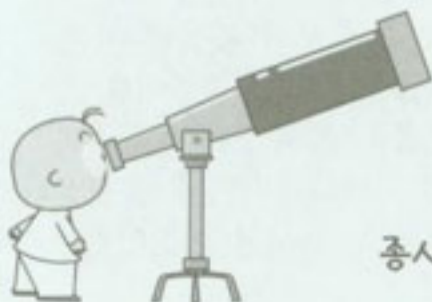
법률상 구분 :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중 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보호인원 : 5명이 보통이며 7명을 넘지 않습니다.

주거형태 및 위치 : 주택, 아파트 등으로 일반 주택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몇 개의 그룹홈이 가능한 한 곳에 집결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시설기준 : 전용면적 60제곱미터(18평) 이상의 주택형 숙사가 필요합니다.(전세 가능)

종사자 : 시설장(상근) 1인 및 보육사(상주) 1인입니다.



2005. 6. 23 / 혜원이 대안가정 가는 날^^

잠든 혜원이가 아빠 품에 안겨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혜원은 곧 아빠와 떨어질 것을 예감했는지 아빠에게서 좀처럼 떨어지려 하지 않더라구요. 잘 갈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아나나 다를까 차를 탈 때 까지만 해도 괜찮더니, 출발하는 순간 울음을 터뜨려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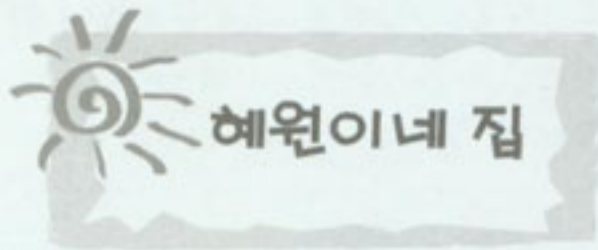
드디어 대안가정 도착! 대안가정 엄마에게 안겨서 집으로 들어갔고, 현관에 들어서 대안가정 아빠를 보자 덩석 안겨서 얼굴을 묻고, 울음도 그치더니 잠시 후 생글생글 웃더군요. 대안가정 아빠, 엄마, 혜원과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돌아

오다 혜원을 보려고 학교 마치고마자 뛰어오는 오빠를 만났습니다. 혜원은 오빠에게 그만 폭 빠져버렸습니다. 오빠에게 과일을 포크로 집어서 갖다 주면서 미소 짓는 혜원이. 오빠의 팔을 손가락으로 폭 찌러보더니 딱 붙어서 앉더군요. 혜원아! 대안가정 언니, 오빠들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래^^



2005. 7. 5 / 혜원의 웃음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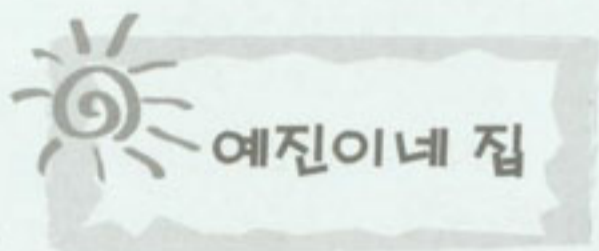
혜원은 우리집에서 목소리가 제일 큼니다. 울 때보다 웃을 때가 더 큼니다. 처음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언니, 오빠가 안 일어나면 방마다 다니면서 깨우는 것도 혜원이 몫입니다. 식탁에서는 꼭 기도를 먼저 하려고 두손을 모으고 '아멘' 하고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손을 높이 듭니다. ㅎㅎㅎ 가끔씩은 때를 많이 써서 힘들게도 하지만 너무나도 귀



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빠, 오빠, 엄마 하면서 부를 때면 '언제 재가 젓꼭지를 물고 그렇게 울었던 아이인가' 하고 새삼스럽습니다. 혜원이가 더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2005. 7. 12 / 땡강공주 혜원이

혜원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울고 뽀니다. 그리고 들어주면 금방 웃습니다. 이제는 그 속셈을 다 압니다. 밖에 나가고 싶을 때라든가, 졸릴 때는 막 무가내로 때를 씹니다. 특히 시장에 나가게 되면 정말 통제불능일 때가 많습니다.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고 만지고, 만약 못하게 하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시장에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자고 하니까 좋은데... 그리고 엄마가 다른 아이를 안고 있으면 짹째 와서 밀쳐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혜원을 이뻐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빨리 기저귀나 뺐으면 하는 바램인데...



2005. 5. 18 / 머리 끝에 올라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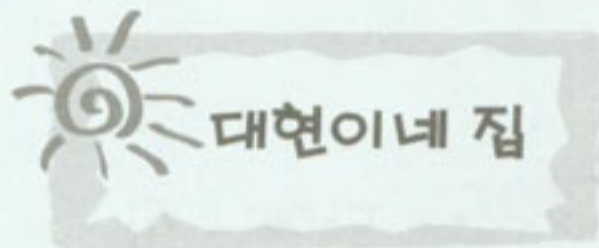
지난 일요일에 예진은 서울 언니들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언니들이 사준 분홍구두 때문에 입이 함박꽃입니다. 멋낼 때, 이쁘게 해준다면 고생도 감내(?)합니다. 언니하고 타는 자전거는 뿌서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냥 즐겁습니다. 언니들이 많이 이뻐해 줍니다. 오랜만에 모든 식구들이 기숙사 정원에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 찍을 땐 눈을 크게 떠야한다고 엄만 말합니다. 예진이 요즘 애교만점입니다. 엄마가 좀 봐주면 머리 끝에 올라서 호령합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2005. 7. 4 / 여시 예진이

요즘 날이 꾸물거리 걱정입니다. 모두 잘지내시겠지요? 우린 요즘 부부싸움이 한창(?)입니다. 왜 그러냐구요? 난 그냥 놔두라고 하고, 우리 집사람은 너무 완벽(?)하려고 하고, 오늘은 예진은 입이 하늘에 걸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입고 싶었던 옷을 입었거든요. 교회 갈 때 입는 옷(?). 더운 것도 모르고... 아무튼 이런 저런 일이 예진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2005. 7. 13 / 예진이 남자친구 사귀다!

예진이가 드디어 남자 친구를 사귀었어요. 어린이 집에 현빈이라는 친구랍니다. 우리 뒷집에 사는데 신이 났습니다. 친구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가꾼 들꽃정원하고 귀염둥이 예뻐가 재주를 부린답니다. 요즘 예진인 토마토 따먹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토마토 먹으로 오세요. 늦게 오시면 예진이가 다 따먹어도 몰라요.



2005. 7. 9 / 이럴 수 있나요?

장마철에 대안가정가족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넙넙 오랜만에 들어와 가족들 얼굴 잊어버리겠네요.

우리 대현이 땀에~ 사실은요, 지난밤에 뭐든지 잘 먹겠노라고 굳은 약속을 했는데, 아침밥을 먹던 대현이가 밥 안에 든 콩을 다 가려냈지 뭐예요. "너 먹기로 약속 했잖아?" 했더니 "내가 먹으려는 콩은 파란콩이야"라며 끝내 먹지 않았어요. 저녁에 다시 콩을 바꾸어 넣어 했는데 이제는 파란콩이 아니라 빨간 콩을 먹을 것이라며 먹지 않는 거예요. 콩을 잘 먹일 수 있는 좋은 비법은 없을까요? 우리 대현이를 위해

2005. 6. 17 / 아란이!! 대안가정 가는길~!!

오늘은 아란이가 대안가정으로 가는 날!! 애써 눈물을 감추며 서둘러 돌아나가는 엄마의 마음을 아는 지 모르는지 잠든 채로 아란이는 엄마와 짧은 이별을 나누었습니다. 태어난지 이제 겨우 20일된 아란이를 위해 대안가정 어머니께서 아침부터 대구까지 와주셨답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아란이는 다시 대안가정 엄마 품에 안겨 영주로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어른들이 휴게소에서 점심 먹을 때까지만 해도 새록새록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아란이는 도착할 무렵부터 조금씩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우유 먹을 시간이 됐거든요. 오만상 미간을 찌푸리며 마치 '우씨~ 어른들은 다 점심 먹어놓고 나는 왜 밥 안줘요!'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를 위해 들린 동사무소에서 우유 반통을 똑똑한 아란이는 대안가정에 도착하자 다시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005. 6. 17 / 아란이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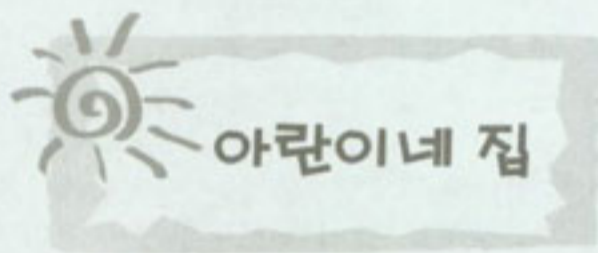
아기가 좋아서 신청은 했는데, 막상 만나려하니 겁도 나고, 걱정이 앞섰는데, 아란이를 보고나니 그런 것들이 없어지네요. 아기가 좀 작고 어리니 더 잘 봐야겠지요. 두 언니와 오빠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아는지 모르는지 잠만 자네요. 큰딸은 연신 아이의 손가락을 만지고 눈 한번 떠보라 신호를 보내지만... 소식이 없네요. 오늘 아침까지 거의 두시간에 한번씩 깨서 기저귀 갈고 우유 먹고, 아란이는 아무



도움을 주실 분은 안 계신지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되시기를 빕니다.

2005. 7. 24 / 표정놀이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올려 보네요. 저는 큰누나입니다. 방학동안 집에 잠시 와있죠.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카메라만 들면... 끼여든답니다. 근데 막상 사진 찍는다 하면, 표정이 -- --;; ㅋㅋ 대현이 표정놀이 엄청 좋아합니다. 신난다네요. 방학동안 요놈이랑 계속 같이 있으려니 사실 싸울 때도 있어요. 제 친구들은 6살짜리 꼬마랑 싸우는 저를 보며 철없다 구박 하는데 저도 그럴듯한 이유는 있다구요. 가끔 대현이랑 저랑만 집에 있을 때, 한날은 자기 혼자 신나게 만화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좀 보려고 그랬더니 자기 만화 7개 밖에 못 봤다고 절대 안된다는 거예요. 이런 치사쟁이.. ㅋㅋ 이런일로 싸워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제가 이기죠. 요즘 날씨 엄청 덥죠? 더위 때문에 힘드신 분들 꽤 많던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구요.



렇지 않는데 저만 구름위에 떠있네요. 잠이 부족! 며칠 지나면 적응이 되겠죠. 방금 목욕하고 우유 한병 똑딱! 또 잡니다.

2005.6.22 / 예방접종

오늘 아침은 바빴습니다. 세 아이 학교 보내고 아란이 목욕시키고 보건소에 가야 하니까. 주사 맞고 오면 그날은 목욕을 못하니 미리 하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물속에서 두다리를 쪽 뻗고 시원해 합니다. 3.25kg의 몸무게와 58cm의 키에 아란! 오늘 드디어 BCG 접종을 했어요. 저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간호사언니들이 아란이를 붙잡고... 아란이는 크게 울었죠. 말은 못하지만 많이 아팠을 꺼예요. 이곳에 온지 일주일째네요. 이젠 제법 적응이 되어서 다행인데, 만나는 사람들이 귀엽다고, 혹은 예쁘다고 안고 흔들어서 잠자고 나면 어깨를 들썩이고 안으라 하네요. 말이 안되니 울음으로...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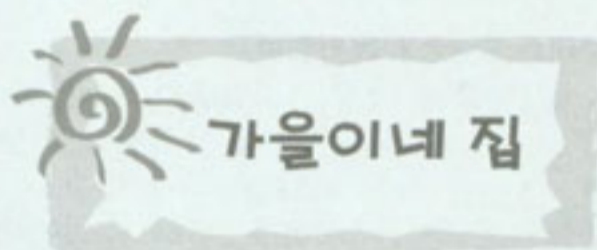
2005. 5. 24 / 다혜가 더 바빠요

오늘은 다혜의 언니 오빠가 소풍을 가는 날이다.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은 설레임으로 분주하다. 덩달아 바쁜 다혜. 언니들 머리 빗자마자 엉덩이를 밀고 들어앉아서 "언니머리도" 다혜는 자기가 언니란다. 아이들이 옷을 챙겨 입자, 다혜도 왔다 갔다 하며 "언니 바지? 언니바지?" 아이들이 가방에 물건을 주섬주섬 챙기자, 다혜도 놀이방 가방에 과자를 넣으란다. 드디어 언니 오빠가 학교로 가고... 다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언니도 학교갈래~"하며 따라나선다. 허걱! 다혜는 더 있다가 놀이방 가자고 겨우겨우 달래고 바쁜 아침을 마무리했다. 가방을 메고 나서는 다혜의 뒷모습에도 신바람이 가득했다. 넘어가지고 간 과자 한봉지는 어떻게 할꼬? 궁금하다.

2005. 7. 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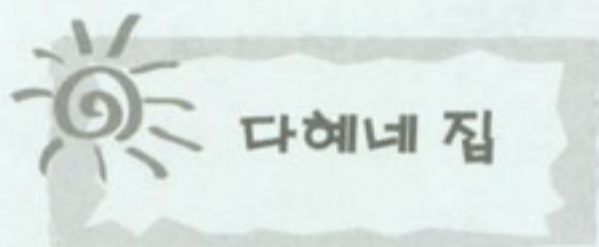
오늘이 다혜아빠 생일이걸랑요^^

아이들이 깜짝 파티를 한다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더군요^^ 불을 끄고는 케익에 촛불 켜고 고깔모자 쓴 아빠는 늦게 들어오게 해서는 들어오자마자 생일축하 노래 부르고, 편지 써서 읽고... 선물로 연필 4자루, 지우개, 작은 기념품들(부석사 앞에서 지난 겨울에 산 것), 하트모양 장식을 건네던데, 재밌죠? 그리고는 서랍장위로 넷이서 쪼루루 올라가더니 합창을 하더군요^^ 이만하면 세상에서 켈 근사한 생일파티 아닐까요?



2005. 5. 6 / 아빠~ 오빠~

어제 낮에 가을이가 밖에서 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오빠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오빠도 가을이를 보았는지, "가을아~" 하고 불렀다. 그러자 가을이가 "아빠~"하면서 오빠한테 달려가 안겼다.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아줌마가 너무 우스워했다. 도대체 말을 배우려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뭐든 '아빠~'로 통한다. 원하는 물건이 있어도, 그 물건을 가져다 줘도, 오빠 보고도, 기분이 좋아도, "아빠~ 아빠~" 소리를 질러댄다. 가을씨! 아빠와 오빠는 다른 거니까 구분 좀 해주시와요 ^-^




2005. 7. 27 / 캠프간 다혜

어제 아침 다혜는 늦도록 잠에서 깨질 못했다. "다혜야! 다혜 캠프갈 거야? 다혜야 김밥 많이 싸까? 다혜 과자 여기 있네. 가만 다혜 음료수는 어딴지?" 계속 혼자서 다혜에게 말을 했더니 결국은 놀이방 출발 20분 전에 부시시 일어나서 거실로 나온다. 그리고는 옷이며 도시락이며 간식이며 수영복이며 챙겨 있는 가방을 열어보고는 흐뭇하게 미소짓는다. 김밥을 주섬주섬 먹고는 얼른 캠프가야 한다고 집을 나선다. "슈가. 언니 캠프간다~ 슈가 메롱~~ 슈가 너도 언니랑 캠프갈래? 엄마~~슈가 캠프 안간데" 이번엔 우리집 강아지 슈가한테 사랑을 한다^^ 오늘 노느리고 피곤에 지쳐 잠이 든 다혜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혜야 재밌었니? 다혜야 안 울고 잘 잤어? 다혜야 엄마 보고 싶었지? 다혜야 밥 잘 먹었어?" "... 대답도 없는 아기를 업고 그렇게 모녀가 돌아왔다.



2005. 6. 21 / 축하해주세요~

경북대병원에 가을이 보청기를 하러 갔다가 서울에도 없는 정밀검사가 있다고 검사를 한번 더 받아봤는데, 오늘은 그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오늘따라 더 초조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가을이의 이름이 불리고, 정상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 보청기는 안해도 된다는 결과였다. 그동안 고생했던 날들이 스쳐지나가고, 가을이와 함께 나누었던 고통들도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어느새 눈에는 눈물이 핑 돌고, "가을아!"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 병원에서 보청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서울의 병원까지 갔지만 같은 결과에 마음을 굳히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참 운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을이는 미숙아라서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줬으니 말이다. 튼튼하게 자라줄 것이라는 확신도 생긴다. 가을아... 이젠 아무 걱정없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자고, 놀고,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잘 커주기만을 바랄게.



동진이네 집

2005. 7. 11 /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요즘 이런저런 일로 정신없이 살다보니 어느덧 동진이와 한 가족이 된지도 2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네요. 하루가 늦긴 했지만 어제 오후에 애들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 준비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또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 초기에 서로를 몰라서 서툴렀던 적응기간과 치아 치료로 힘들어했던 시절, 그리고 어린이집 생활과 합기도를 배우면서 자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이젠 당당한 초등학생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기만 하네요.

그러나 아직도 숙제는 많이 남아있지요. 여덟살짜리 머슴애들이 보통 그렇듯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고 꼭 해야할 일들도 핑계를 대면서 뒤로 미루려 할 때가 많아요.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 너무 착한 모범생이라는데 집에만 오면 아니니. 그래서 지금은 교육을 거꾸로 시키고 있어요. 학교가면 친구들과 장난도 많이 치라구 하고 시간날 때마다 놀이터에 나

가서 놀라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우리 가족이 동진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닌지,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건 아닌지, 앞으로는 동진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끔은 가져야겠네요.

2005. 7. 12 / 웃지못할 우스운 이야기 들

하나! 가족 신문을 만들어 오라는 숙제가 있었다. 이모부가 자료를 뒤져 샘플을 가져와서 같이 만들기 시작했다. 샘플엔 여럿의 작은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모저모]가 있었다. 그걸 본 동진이가 진지한 분위기를 일순간 바꿔버렸다. "난 이모라고 안할래. 엄마라고 할래." 다들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동진이가 제법 늘은 타자솜씨로 [이모저모]를 [엄마저모]로 바꾸어 적었다. 한동안 신문 만드는 일을 멈추어야 했다.

둘!! 어젯밤에 동진이가 푼 학습지를 누나가 배를 잡으며 들고 다녔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오랜만에 찾아가서 인사를 할때 무슨 말을 하면 좋은가요?' 였다. 근데 1학년이젠 정말 어려운(?) 주관식 문제였다. 그래서 동진이가 약간 틀리게 적었는데 누나는 그게 재미있었나보다. 누나는 6학년이어서 조금 안다는 의미였는지 정말 우스웠는지... 동진이가 적은 답은, '잘 있었니?' 였다.


2005. 6. 10 / 어진이 세번째 생일

어진이 15개월에 왔는데 이제 세돌이 되었다. 얼마나 많이 컸는지...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요전에 누나가 폐에 바람이 찼다고 입원해 있었다. 누나랑 통화할 때 하는 말, "누나 아직도 아파? 어디가 아파?" 어떻게 어른처럼 고런 말이 나오는지. 며칠 전 어진이 생일이라 누나가 예쁜 케익을 사들고 누나 친구들과 함께 왔다. 어진은 누나 친구들도 참 좋아하는(누나들이 예뻐하니까). 우리 식구하고 누나친구들하고 케익에 붙여고 떠들석하게 지냈다. 밥 먹는게 까다로워서 살이 안 찌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키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은 걱정은 안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자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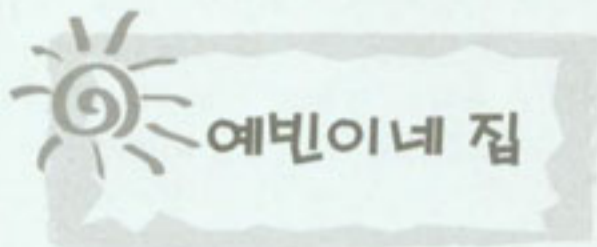
2005. 7. 27 / 아직도 불안한지...

어진이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다. 요즘은 저녁 늦게 잠이 들어 아침에 늦잠을 잔다. 어린이집에 안게겠다고 떼 쓰는일 없이 잘



어진이네 집

다녀 예쁘다.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리면 그냥 집에 안 오고 놀이터에서 30분가량 놀고 가게에 가서 껌하나, 먹고 싶은것 하나 사 가지고 온다. 놀이터에서 놀때 제 또래가 있으면 곧잘 어울려 노는데, 아직도 무슨 불안감이 남아 있는지 잠깐 놀고 엄마를 부르고, 또 잠깐 놀고 엄마를 부른다. 엄마 여기 있으니까 걱정말고 그냥 놀라고 해도 그저 엄마 생각이 떠나질 않는가보다. 예전보다는 많이 안정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마음속에 불안감이 남아 있는건지...



2005. 4. 23 / 이별연습

주말에 예빈이를 친가에 보내는 걸로 이별 연습을 시작하기로 했다. 친 아빠와 언니 다현이가 도착했다. "예빈아! 우리 이렇게 다같이 놀러가자!"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며 싫단다. 내가 점퍼를 걸치며 "아빠도 빨리 옷 입어요 우리 놀러가자. 빨리! 빨리!" 이렇게 바람 잡고 친아빠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엄마는 아빠 차 타고 뒤따라 갈게 먼저가 알았지?"하고 보냈다. 밤 11시쯤 예빈이 친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 밥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는다고, "먹을 게 없네. 엄마! 아빠! 빨리 이리 오라고 해" 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예빈이! 배신해서 미안하다. 울지 말고 잘 놀며 가족들과 많이 친해져서 오너라. 나중에 힘들지 않게... 이렇게 우리는 이별 연습의 첫 발자국을 뒀다.

2005. 5. 21 / 놀다올게...

어제 늦은 오후, 아빠가 예빈이 짐을 다 꺼내 묶는 걸 본 예빈이가 "아빠! 예빈이꺼 왜 묶어요?"한다. "저번에 예빈이가 그랬지? 다현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구? 그래서 가지고 가서 언니랑 놀다 오라구"하니, "으응! 예빈이 다현이집에서 놀다 오라구?"한다. 마침 군에 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와서 바꿔주니 "오빠! 예빈이꺼 다 가지고 다현이집에 가서 놀다올게. 오빠! 사랑해!"한다. 간간이 다현이집 이야기를 했던 것이 먹히는지 생각보단 수월하게 짐을 싸다. 그래 네가 내 스승이다. 너는 나를 떠나는게 아니구 놀러가는거야.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다. 근데, 놀러갔다 시집 갈 때쯤 오려나?...

2005. 6. 3 / 너무도 보고픈 예빈아!

사랑하는 우리 예빈이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어린이 집에는 다니고 있니? 나이답지 않게 생각이 깊고 넓어 잘 견디리라 믿는다. 그런데 이 엄마는 아직도 널 보내지 못하고, 주방에 서서도 "엄마 뭐해!" 하는 네 소리에 깜짝 놀라 허둥대고, 음식을 먹을 때도 "아유 맛있다. 엄마! 너무너무 맛있어요" 소리에 눈물 펄펄 쏟으며 먹지 못하고... 이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다. 자그마한 너의 빈자리가 어찌 이리도 크지 모르겠구나. 아침에 일어나 너의 마음의 평화만을 빌며 항상 하느님 안에서 살기를, 하

느님께서 항상 너의 따뜻한 동행이시길 빌고 또 빈다. 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었고 기쁨이었던 예빈아! 이 엄마만큼 그리워하지 않기를, 이 엄마만큼 힘들어하지 않기를, 이 엄마만큼 눈물 흘리지 않기를, 이 엄마만큼 아파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때까지 건강하고 예쁘게 크는거야 알았지? 예빈이! 사랑해! 친엄마 아빠에게도 사랑이고 기쁨이기를...

♡ 예빈이 친부모님께 돌아갔습니다

지난 5월 21일 예빈이가 2년 7개월만에 친부모님께 돌아갔습니다.

2002년 10월 16일, 막 돌이 지난 예빈이를 처음 대안가정에 데려가던 날이 생각납니다. 미간에八字로 깊게 패인 주름과 무표정한 얼굴을 보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안가정 가족들의 지극한 사랑으로八字 주름도 사라지고 영민하고 예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예빈이로 인해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사랑이 깊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귀가를 앞두고 친부모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예빈이가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 친가족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2개월간 가졌답니다. 3월 15일, 친가정과 대안가정 가족들이 2년간 예빈이 정신과치료를 해주신 주치의병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로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친가정에서 하루밤을 자고 다시 대안가정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예빈이가 돌아가는 날, 대안가정 거실은 예빈이가 쓰던 물건들로 꽉 차있었습니다. 1톤 트럭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짐을 보면서 그동안 예빈이가 대안가정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 되어버린 거지. 예빈이를 보낸 뒤 대안가정 엄마가 결국 몸져눕게 된 것도 그런 연유이겠지. 예빈이의 안정적인 귀가와 적응을 위해 2개월동안 참 씩씩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빈이는 이제 친부모님께 돌아갔습니다. 많은 염려와 아쉬움이 남지만 여기까지가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예빈이가 잘 자라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휘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나눔 공동체

2005. 6. 21 / 곡(哭)소리

남양학교 양호선생님曰, “오복이 눈이 이상하네요. 안과에 한 번 가야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법이다. 병원은 많은데 안과 찾기가 왜 그리 힘이 드는지... 결국 명덕네거리 근처까지(나눔에서 엄청 맘)가서야 겨우 찾았다. 접수를 마치고 잠시 손을 씻으려간 사이 간호사 “학생 무슨 자예요? 이거는요?” 글자

를 모르는 오복이 붙들고 시력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장하다 오복아!! 넌 우리집 최초로 시력 검사를 받은 아이다!!

사건은 곧 이어 의사 선생님의 진찰로... 너무도 쉬운 검사 기계에 턱을 대고 10초만 있으면 끝나는 검사. 그러나 오늘 의사 쌤 잘못 걸렸다. 오복이의 곡이 시작된다. “엄~~마 악!!! 시러...” “어이 간호사 아이 좀 잡아” 역부족!! 내가 뒤에서 목을 눌러고 간호사가 손을 잡고... 겨우 진찰을 마쳤다.

“휴~~우. 이런 일은 참이네” 병원 개원이래 주사도 아니고 시력검사 받으며 곡소리를 낸 친구는 오복이 뿐이다. 다행히 결과는 약간의 염증. 전염 가능성도 낮다고 한다. 문제는 의사 쌤이 주저하며 하신 말씀... “내일 한 번 더 나오세요!”

2005. 6. 9 / 요즘 엄마는 비몽사몽...

오늘 아침엔 혜성이가 4시 좀 넘어서 일어났다. 어제 좀 일찍 잠이 든다 싶었는데, 그래서 살 것 같았는데 공짜는 없나보다. 일어나서 놀자고 보채는 놈을 억지로 다시 눕혀놓고 도닥거리도 윤석이 다시 잘 생각이 없다. 우짜든지 다시 재워볼 요량으로 우유를 타서 먹이는데, 잘 것처럼 눈이 감실감실하면서 우유병을 빨던 놈이 다 먹고 나자 다시 발탁 일어난다. 누워있는 엄마를 잡아당기며 일어나라고 성화를 한다. 할 수 없이 거실로 나와서 장난감통을 열어놓고 놀라고 했더니 다시 엄마 품에 달라붙어서는 일어서라고 하고, 손가락으로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지가 지목하는 곳으로 가자고 한다. 아빠가 혼자 자고 있는 혜진이 누나방으로 가자고 해서 자고 있는 아빠 위에 내려놓았더니 신바람이 난다. 하지만 어제밤 술 한잔 걸치고 늦게 들어와서 씻지도 못하고 곤드라진 아빠에게서 반응이 있을 리 없다. 다시 데리고 나와서 안방으로 거실로 업었다 내렸다를 수도 없이 반복하다가 7시가 되어서 애들을 깨웠다.

“누나들 나와서 혜성이 좀 보라. 엄마 좀 자자!” 혜진이랑 유현이가 일어나서 나왔는데도 여전히 엄마에게만 붙어있으려 하는 혜성이. 어쩔 수 없이 울려대며 아침을 차려주고 다시 혜성이와 씨름을 했다.

7시 30분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남편을 깨웠더니 바로 씻고 출장준비해서 혼자 나가버린다. 혜성이 안고 택시 타고 친정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잠이 막 쏟아졌다. 지금도 비몽사몽이다. 언제쯤이나 적응이 될려는지...



해뜨는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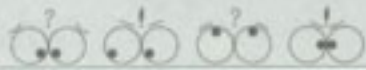
2005. 7. 14 / 이젠 못말린다

확실히 남자애랑 여자애랑 다름을 느낀다. 혜진이 는 정말 조용하고 수월했었다. 위험한 짓도 거의 안 했고, 잠시 눈돌리는 것도 가능했다. 그런데 우리 혜성이 절대 눈돌릴 수 없게 만든다. 서랍속 물건은 물론이고, 집안의 모든 가구와 물건들이 제 장난감이다.

이젠 걸어 다니면서 손살같이 공간이동을 해서 눈깜짝할 새 쿵! 죽는다고 울어댄다. 요즘 잘 하는 말. “아-빠! 엄-마! 어-빠-빠!” 이 세마디에 우리 가족 깜빡 넘어간다. 목소리가 옥구슬같이 청명하고 맑다. 근데 떼쓰며 울 때는 완전히 못 말리는 모습애다.

2005. 7. 22 / 이마트에서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나서 저녁에 혜성이 데리러 같이 간다. 남편이 너무 바빠 기다리기도 그렇고 해서 우리끼리 혜성이 데리고 오는데 장난이 아니다. 오는 길에 간단하게 몇가지 사려고 이마트에 들렀는데 걱정했던거와 달리 텅 빈 카트에 앉는다. 야! 고새 정말 많이 컸다. 한달전만 해도 카트에 앉혔더니 죽는다고 울어대서 안고 다녀야 했는데, 이젠 제법 즐기기까지 한다. 그런데 가관인건 우리 딸내미들. 혜성이 카트에 태워서 이마트로 들어서면서 “혜성이가 최고로 이쁠꺼야!” 하면서 얼마나 우쭐해 하는지. 고것들 정말 이쁘긴 이쁘다.



실종아동과 허위출생신고, 그리고 이상한 입양제도

김명희 사무국장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8월 1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지원법)에 대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실종아동을 찾는 일에 팔을 걷어부쳤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실시되는 '실종아동지원법'에 의하면, 실종아동을 선의로 보호하고 있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보호시설 종사자 등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가 실종아동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종아동지원법'의 발효와 함께 정부는 기존의 '미아찾기센터'를 '실종아동찾아주기센터'로 개편하고, 실종아동의 범위도 8세 이하이던 것을 14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외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즉각적인 수색과 수사여부 결정, 보호시설 아동과 실종아동 가족에 대한 유전자검사와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공무원의 아동 및 보호자 면담조사 권 등을 강화하는 등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필요한 다각적의 조치를 취했다.

생업도 포기한 채 전국 방방곡곡을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헤메는 부모들의 애틋한 심정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 고맙고 반가울 따름이다. 부디 이번에 발효된 '실종아동지원법'으로 인해 실종아동을 조기에 찾아내고, 한명의 아이라도 더 찾아내어 부모 품에 돌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자꾸만 고개가 가우뚱해지는 건 왜일까?

'실종아동지원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가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8일 한 일간지에 '장기실종아동 72% 허위신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하루 전인 27일 경찰청 미아찾기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견한 장기미아(8세 미만) 53명 중 71.7%인 38명이 허위신고 사례로 밝혀졌다. 허위신고 사례유형을 보면 ▲타인에게 입양 15명 ▲양아버지(재혼) 성씨를 받기 위해 10명 ▲생활고나 장애로 유기 8명 ▲기타 5명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0월 말에도 전국지방경찰청 장기미아추적전담반이 찾아낸 장기미아 60명 중 33명(55%)이 친부모에 의해 유기되는 등 허위실종신고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실종된 아이들 대부분이 새로운 호적을 갖고 살고 있는데, 바로 허위출생신고를 통해서 원하는대로 성과 이름을 바꾸어 법적으로 새옷을 갈아입게 된다. 출생신고는 너무나 간단하다. 병원에서의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집에서 자가분만했음을 증명해줄 증인 2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친부모나 가족에 의해 이중호적을 갖게 된 경우는 그나마 미아추적전담반에 의해 뒤늦게나마 발견될 가능성이라도 남아있지만, 실종아동이 전혀 연고가 없는 미지의 가정에 출생신고라는 방법으로 새 호적을 갖게 된다면 아마 다시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미아찾기에 대한 사회여론의 공감도가 높아지면서 경찰청의 미아수사가 활기를 띠고 허위출생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 것 같다. 지난해 5월, 입양기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미아전담 경찰 2명이 출동한 것이다. 이유인즉슨 출생신고가 너무 늦게 되었기에 혹 미아를 데려다 호적에 올린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허위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이상한 입양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겠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양특례법)에 의해 아동을 입양할 경우, ▲입양신고서 ▲아동의 호적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후견인 증명서 ▲양친가정조사서 등을 갖추어 구청에 접수해야 한다. 이때 호적이 없는 아동인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후견인이 되어 취적절차를 거쳐 일가창립을 할 수 있다. 또 입양신고서를 작성할 때 입양특례법 제8조에 의거 양자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요망하는 내용을 (⑥기타 난에) 반드시 기재해야 아동의 성과 본이 바뀌게 된다.

다음으로 아동의 호적변경 상황이 아동의 주소지로 넘어가기까지 1주일을 기다렸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의료보험공단에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피부양자 신청을 하면 의료보험에 가입이 된다.(입양사실확인서가 있으면 의료급여증 발급도 가능)

최근 아들을 입양하면서 입양특례법에 의한 합법적인 입양절차를 따랐는데 거의 5개월이 걸렸다. 지난 5개월간 혹 일이 꼬여 아이를 돌려보내야 되는 일이 생길까 근거없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가만히 살펴보면 5개월이나 걸릴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체가 되었을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4년전 딸 입양절차를 진행할 때 역시 3개월이 걸렸다. 그때도 지역에서 합법적인 입양절차를 따르는 경우로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했었다. 이번에 아들을 입양한 기관도 우리가 첫 사례라고 했다.

국내입양 역사가 50년이 넘는데 합법적인 입양절차를 따르는 사례가 이렇게 극소수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냥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면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호적에 입양과 관련한 사실이 고스란히 기록된다는 점이다.(2008년부터는 호적에 기록이 남지 않음)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입양기관에서 합법적인 입양절차를 무시하고 허위출생신고 방법을 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입양아동의 인권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입양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했다. 안그래도 거의 지키지 않는 유명무실한 입양절차를 더 까다롭게 엮어놓았으니, 이제 합법적인 입양절차를 따르는 사례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어느날 홀연히 사라져버려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아이들.

허위출생신고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으며 이중호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

이 땅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이 나라 국민이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입양을 기다리는 수많은 아이들.

허위출생신고라는 손쉬운 방법이 통용되는 한 이 아이들의 인권은 '존재' 자체가 부정되거나 흔들리는 모순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쌍둥이가 된 아이들

엄마 아빠도 다르고, 태어난 날도 다른 은별이(05.5.11생)와 아란이(05.5.28생). 하지만 두 아기는 이제 한 지붕 아래 쌍둥이자매가 되었습니다. 한 달 차이로 같은 대안가정으로 가게 되면서 17일 먼저 태어난 은별이가 언니가 되고 아란이가 동생이 된 것입니다.

지난 5월, 태어난 지 열흘 된 아란이가 위탁 의뢰 되었습니다. 미혼인 엄마는 임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고, 아란이를 낳은 다음 날부터 산후조리도 못한 채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빠와는 당장 결혼할 형편이 안되고, 도움 받을 곳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엄마는 1년만 아란이와 떨어져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결혼도 해서 아란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갓난아기를 키우겠다는 대안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마침 아란이는 대안가정과 인연이 잘 닿았습니다. 동욱·가은이 남매를 키우다 지난 3월 친가정으로 귀가시킨 대안가정에서 선뜻 아란이를 돌보겠다 하신 것입니다. 대안가정 엄마가 놀이방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데다 친자도 셋이나 키우셨고, 무엇보다도 동욱·가은이 남매를 건강하게 돌봐주신 가정이라 믿음이 가고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후,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에 은별이 엄마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변변한 직장이 없던 아빠는 엄마가 갖고 있던 돈을 다 쓰고, 은별이 출산비를 마련한다며 나가서 연락이 두절되어 엄마와 아기는 거처도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임시로 언니집에서 지내고 있지만 언니도 형편이 어려워 곧 월세방을 비워야 했습니다.

엄마가 제대로 먹지 못해 모유도 안 나오고, 분유값이 없어 갓난아기에게 생우유를 먹여 설사를 했다는 말에 본부 상담원들은 급하게 가

정방문을 했습니다. 방에는 습한 곰팡이 냄새가 나고,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던 엄마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다행히 은별이는 건강해보였습니다.

은별이와 엄마를 차에 태워 대안가정 주치의 병원으로 가서 간단하게나마 건강검진을 하고 약도 받았습니다. 아빠 가출신고를 위해 파출소로, 전입신고를 위해 동사무소로 다니는 동안 엄마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속에서 받지를 앓는지 몇 술 뜨지도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는 엄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먹거리를 따로 챙겨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돌아오는 상담원들의 발걸음도 무거울 수밖에 없었지요.

다음날 다시 분유, 기저귀, 아기옷 등을 챙겨서 은별이네집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하루 사이에 기력을 많이 회복하여 표정도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여름 땡벌속으로 다시 나가자고 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쓰여 상담원들이 동사무소와 경찰서, 그리고 은별이네를 서너 차례 오가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홈페이지에 은별이 사연을 공지하고 대안가정을 찾았지만 나서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란이네 대안가정에서 은별이 위탁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은별이를 같이 키우자고 하신다며... 둘다 너무 갓난아기라 쉬 결정할 수가 없어 좀더 기다려보기로 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다른 대안가정을 찾을 수 없어, 결국 지난 7월 28일 생후 78일된 은별이가 아란이네 대안가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너무나 많은 일을 겪어야 했던 은별이와 아란이. 그러나 이 예쁜 쌍둥이 자매에게 이제는 좋은 날만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은별아, 아란아!! 대안가정에서 사랑 듬뿍 받고,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렴.





행복의 콩팍지에 씹여보아요~

(대안가정 해피로그 이야기)

장효점 상담원

아름다운재단과 네이버가 협력하여 만든 온라인 기부포털사이트 [해피빈]이 7월 11일 정식 오픈했습니다. 해피빈은 누리꾼(네티즌)들이 각 공익단체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는 기부처를 손쉽게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시민사회단체들은 기부 블로그인 '해피로그'를 만들어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기부정보를 제공합니다. 그야말로 기부포털사이트인 셈이지요.

해피로그를 만들고 참여할 단체를 모집하고 있던 4월쯤 소식을 듣고, 대안가정운동본부도 해피로그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6월 시범운영 오픈부터 지금까지 부지런히 손질하며 해피로그 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해피로그를 분양받고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피빈이라는 온라인공간이 대안가정운동을 알리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정성을 쏟았습니다. 덕분에 해피빈 사이트 관리하는 분들에게 '베스트'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지요.



6월 28일, 드디어 기부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오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날 하루 만에 네 명의 기부자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오픈 이후 해피로그는 더욱 활기를 띄었습니다.

대안가정 해피로그를 다녀가는 사람의 수가 하루 평균 60~70명으로 늘어났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본부에서 올려놓은 갖가지 사연과 소식에 댓글로 응원해주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기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8월 6일 현재까지 28명이 31회 기부하여 총 379,900원이 모였습니다.

쟁쟁하고 큰 단체들도 많은데 우리처럼 작은 단체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아니, 대안가정운동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늘어나니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해피빈 한번 들려보세요. 마음 가는 곳에 손쉽게 기부하고, 대안가정 해피로그도 구경하셔야죠.^^ 대안가정운동, 이제 대한민국 누리꾼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 대안가정 해피로그 놀러오세요 ^^

- 해피빈(<http://happybean.naver.com>)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검색창에서 대안가정운동본부를 찾아보세요.
- 대안가정 해피로그를 클릭! 요기조기 구경하시고, 원하는 기부처를 골라 재밌게 기부도 해보세요.

기부제목	모금목표액
아동그룹홈 기금마련	60,000,000원
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4,000,000원
상근자 1인 인건비 지원	5,000,000원

▲ 운영중인 대안가정 기부처

* 신용카드, 휴대폰, 일반전화, 계좌이체, 은화, 한코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 현황 및 소식

□ 상담내용별 현황

상담 내용 월	아동위탁상담				대안가정상담			지원상담			기타	계	아동- 친부모 인양	신규 신청 가정	신규 의회 아동
	아동위탁 의뢰상담	친부모 상담	대안가정 신청상담	양육 상담	행정	주치의	타기관 연계								
4월	6	3	14	9	2	-	2	12	48	-	6	3			
5월	32	8	13	12	4	-	4	5	78	-	6	10			
6월	27	2	23	6	6	-	4	2	70	-	4	7			
분기계	65	13	50	27	12	-	10	19	196	-	16	20			

□ 상담유형별 현황

상담 유형 월	전화상담	별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기타상담	계
4월	41	4	1	1	1	48
5월	58	14	1	3	2	78
6월	56	5	5	4	-	70
분기계	155	23	7	8	3	196

■ 본부소식

• 대안가정 기초부모교육

5월 17일, 대안가정운동본부 교육실에서 대안가정 기초부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한분 한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 사회복지실습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나눔공동체의 김귀옥 선생님이 사회복지사양성과정 현장실습을 했습니다. 3주 동안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2005 상반기 정기이사회

7월 6일 오후 7시 영남별장에서 상반기 정기이사회를 했습니다. 이사 6명, 감사 2명, 자문위원 1명, 사무국 3명으로 총 12명이 참석했습니다. 2005년 전반기 사업보고와 재정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최대한 간결하게 진행을 했고,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조그만 단체로서 항상 재정적인 어려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만 할 일기에 모두 함께 노력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 아름다운가게 수익나눔 배분선정

아름다운가게 수익배분사업에 신청해 5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위탁아동 초기지원금과

생일축하금으로 사용하게 되며, 7월 14일 증정식에도 다녀왔습니다. 소중한 지원 감사합니다.

• 아름다운재단 1%기획배분 '이빠진 동그라미' - 컴퓨터 2대 지원

아름다운재단에서 지역풀뿌리단체들의 IT기자재 지원을 위한 배분사업을 하기에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는 컴퓨터 2대를 신청했는데, 감사하게도 선정되었습니다. 덕분에 LCD모니터에 최신기종 컴퓨터로 근무환경이 훨씬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 아이들 소식

• 아란(생후 15일, 여)이가 대안가정을 찾았습니다.

6월 16일 아란이가 대안가정으로 갔습니다. 동욱이와 가은이 남매를 위탁했던 대안가정에서 갓난아기를 기다려오던 중이라 선뜻 아란이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아란아! 대안가정 가족들의 사랑을 퐁퐁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야해~~

• 혜원(3세, 여)이가 대안가정을 찾았습니다.

6월 23일 혜원이가 대안가정으로 갔습니다. 혜원과 함께할 대안가정은 목회자 가정으로 그 동안 부모교육을 받으면서 위탁을 준비해오셨고, 특히 자녀들이 위탁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혜원아! 언니, 오빠가 있으니까 좋지?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

• 은별(생후2개월, 여)이가 대안가정을 찾았습니다.

7월 28일 은별이가 아란이네 대안가정으로 갔습니다. 너무 어려 대안가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아란이네 대안가정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아란이와 쌍둥이처럼 자라게 됐네요. 사이좋게 지내렴^^

◆ 회비 및 후원 관련 안내

- 대안가정운동본부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로로 회비 및 후원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금융결제원에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실제 입금하신 날짜와 차이가 있습니다. (약 5일 소요)
- 회비 및 후원금은 가능한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면 좋습니다. 대구은행 계좌가 있으신 경우, 계좌를 알려 주시면 사무국에서 자동이체 신청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

대안가정운동본부 사무국은 올 2월부터 새로운 상근인력을 충원하면서 현재 3명의 상근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는 2명의 상근자가 닥치는대로 일을 쳐내야했지만, 상근인력이 1명 늘어나면서 비로소 업무를 분장하고 일이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일만이 아닌,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새로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1+1=3' 일줄 알았는데 '1+1+1=3+α' 였습니다.

그러나 충원된 1인 인건비로 인해 지난 6월부터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월평균 적자 예상액:100만원) 대안가정운동본부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졌고 시민의 참여와 기여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상근자 1인 인건비 확충을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이 지원하는 상근자 1인은 단순히 1명의 인력에 머물지 않고 무한대의 α를 생산해낼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아래 방법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십시일반 회비인상 - 천원이상 회비를 인상해주실 수 있습니다.
2. 강통통장 확인하기 - 자동이체를 하시는 회원님들은 통장 잔고를 확인해주세요.
3. 신규회원확보 - 사랑하는 분들에게 대안가정운동을 알리고 회원가입을 권유해주세요.
4. 인건비 특별후원 - '상근자 1인 인건비 지원' 을 위한 특별후원금을 보내주세요.

후원계좌안내 :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대구은행 : 068-05-005600-9

농 협 : 718-01-176941

국민은행 : 602-01-0688-119

조흥은행 : 801-01-276520

E·MART 영수증 후원

이·마트

이마트 영수증으로 대안가정운동본부를 후원해 주세요.
구매 금액의 0.5%가 후원금으로 적립된답니다.

대구 성서점과 칠성점에서 직접 적립하실 수도 있고,
영수증(전국 전매장)을 사무국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마트에서 즐겁게 쇼핑하신 후에는

영수증 후원!! 잊지마세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쇼핑한다!!

계산 후, 영수증을 들고
고객만족센터로 간다

후원번호(성서점 146/칠성점 94)와 대
안가정운동본부 이름을 대고
후원을 요청한다
(무인적립기 이용 가능)

체크한 영수증을 돌려받고
뿌듯한 마음으로 귀가한다